

『기계실 없는 승강기(MRL)』 안전검사기준 개선된다

- “강제 환기팬 설치 시, 자연환기구 설치 면제” 등 설치기준 완화 -
- 이해하기 어려운 검사규정을 알기 쉽게 개선 -
- 카내 손잡이 설치기준 강화를 통한 장애인 편의증진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최근 “기계실 없는 승강기”의 안전검사 운영상에 나타난 카내 강제 환기팬과 자연환기구 동시설치 등 과다하게 적용되고 있는 검사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업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을 알기 쉽도록 하는 등 현행 검사기준을 '06년 9월 8일자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 “기계실 없는 승강기”는 승강기를 작동하는 모터 및 제어장치 등을 승강기 카가 움직이는 내부에 설치하는 승강기로 지하철 및 철도역사 등에 많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최근 “기계실 없는 승강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04년 12월 별도의 검사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 ※ “기계실 없는 승강기(Machine RoomLess)”는 현재 전국에 약 7,400여대가 운영 중 (전체 승강기 32만대 중 약 2%)
 - 이번 “기계실 없는 승강기” 검사기준의 개정은 그간 검사기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카내 강제 환기팬과 자연환기구 동시설치 등 과다하게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업계부담이 많이 되는 검사항목을 완화했으며,
 - 검사기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승강기 설치 업체가 이를 잘못 이해하여 본의 아니게 검사기준을 위반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을 알기 쉽도록 개선하였다.
 - 또한 장애인 및 전망겸용 “기계실 없는 승강기”인 경우 카내 손잡이는 장애인 기준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편의를 강화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은, 과다하게 규정하고 있는 검사기준을 개선하여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강제 환기팬이 설치될 경우, 자연환기구 설치 면제 및 승강로 내 중간조명의 설치 폐지 등 5개 항목과,
 - ※ 승강기 유지·보수 시, 승강로 상하 및 카 상부에 일정 조도(50Lux)의 조명설치 내용으로 개선
 - 검사기준 내용의 명확화 등으로 업체의 본의 아닌 검사기준 위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승강기 카 유효바닥 면적에 대한 명확화 등 34항목이다.
 - 또한, 승강기 이동케이블 등 공급이 원활치 않은 국산 부품 등에 대해 인증획득 시까지 최장 1년간 유예를 부여함과 함께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승강기 카내 손잡이 설치기준을 강화하였다.
- 기술표준원은 이번 “기계실 없는 승강기” 검사기준의 정비로, 과다하게 적용되는 검사기준을 완화하여 국내 승강기 설치 업체의 부담이 감소되는 효과와 함께 검사기준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체가 본의 아니게 검사기준을 위반하는 문제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 카내 손잡이 설치기준 강화를 통하여 장애인 이용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산업자원부 전기용품안전팀 02-509-7242]

유럽의 첨단기술 50여개, 국내 이전·상용화 기회 열려

- 「한-EU 기술경영자 포럼」 개최 -

- 산업자원부는 9월8일(금)~9일(토)간 부산 웨스턴조선 호텔에서 K-GIN EU기술협력센터(동서대) 주관으로 한-EU 100여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한-EU 기술경영자 포럼」을 개최하였음
 - 금번 행사는 유럽의 기술이전설명회, 한-EU 기업간 1:1 기술상담회 등으로 구성
- 유럽의 우수기술을 국내에 이전·확산하여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기술의 상품화 및 유럽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금번 행사에는,
 - 유비쿼터스 기술로 유명한 독일 프라운호퍼 IGD 연구소, 나노기술분야 180여개 기업을 대표하는 독일의 IVAM, 암진단 기술 등 생명공학 분야로 유명한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등 28개 유럽 기업/연구소 등이 참석하여,
 - u-헬스케어 테크놀로지(프라운호퍼 IGD), 나노 분야의 MEMS 기술(IVAM), 자동순간 암세포 진단기술(카롤린스카 연구소), 자동차 고효율 디젤-하이브리드 엔진보조 가열시스템(PATEV) 등 IT, BT, NT분야 첨단기술 50여개를 가져와 한국 기업과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등 기술협력방안을 협의하였음
 - 특히, 독일의 프라운호퍼 IGD 연구소는 IT분야 12개 기술을, 독일 기술거래 대행기관인 PATEV는 기계·소재분야 15개 기술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기술세일즈 활동을 전개하였음
- 개최식에 참석한 산업자원부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은 독일의 기계·화학, 스웨덴의 바이오 등 유럽의 우수한 원천기술과 한국의 뛰어난 상용화 기술을 결합하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첨단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금번 포럼에 의미를 부여
- 산업자원부는 지난해부터 국가별·지역별로 차별화된 국제기술협력력을 위해 전 세계를 EU, 미주, 중국, 유라시아, 아시아 등 5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기술협력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K-GIN(Korea Global Innovation Network, 글로벌 기술혁신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에도 K-GIN센터들을 통해 해외 우수기술의 도입, 기업/기관간 네트워크 확충, 기술인력교류 확대, 해외R&D센터 유치 등 국제기술협력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임
 - 국제기술협력 일반 및 권역별 K-GIN센터의 주요활동 관련 정보는 K-GIN Online(www.kgin.or.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문의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팀 02-2110-5171]

'07. 1월부터 에너지진단 의무화에 따른 에너지진단 세부절차 마련

- 5,000toe 이하 중소기업은 진단비용의 70% 지원 -

- '07.1월부터 2,000toe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이 의무화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9.13일(수) 에너지진단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에너지진단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하였음

- 에너지진단 : 전문 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진단기관이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하여 설비를 포함하여 에너지의 공급 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전반에 걸쳐 에너지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기술 컨설팅임

* TOE (Ton of Oil Equivalent) : 석유환산톤

석유, 가스, 전기 등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ton의 발열량인 107kcal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로, 1toe는 일반승용차(연비 12km/l)가 서울-부산을 16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에 해당함

-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의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사업장의 수는 약 2,500 여개로, 이들 사업장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국내 총 에너지 사용량의 33.3%를 소비하고 있음

- 이들 사업장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약 10%정도의 에너지 손실요인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어, 연간 158억원의 진단비용으로 연간 1,481억원(494,000toe/년)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음

- 금번 운영규정이 고시됨에 따라 2,000toe 이상의 사업자들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며, 에너지관리공단은 해당 사업장에게 9월말까지 진단안내서를 우선 발송할 예정임

- 5년주기 중 최초로 진단을 받을 연도는 최근 5년간의 에너지절감 실적을 고려하여 배정할 계획이며,
 - 진단년도 배정시에는 에너지 절감률이 낮은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07년도부터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할 계획임. 만일, 진단, 배정년도 이전에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희망연도를 우선 배정할 계획임
- 한편 2,000toe에서 5,000toe까지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진단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하여, 동 제도의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진단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에너지진단을 위한 세부절차를 살펴보면

- 에너지관리공단은 진단신청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사전에 진단대상자에게 통지하고,
- 당해연도 진단대상자로 통지 받은 사업장은 진단수행 계획을 수립한 후, 진단기관과 진단일정 및 진단범위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 진단기관은 현장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통하여 효율 개선방안 및 경제성을 분석한 진단보고서를 작성·제출함
- 에너지관리공단은 사후관리를 통하여 진단보고서 확인 및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진단제도의 부실화를 예방하도록 하였음

[문의 : 산업자원부 에너지 관리팀 02-2110-5421]